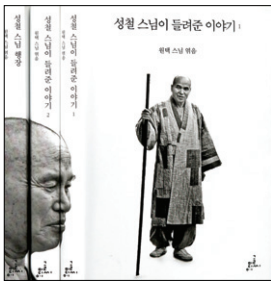


다시 듣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1, 2〉
〈성철 스님 행장〉 세트
원택 스님 엮음
클씨미디어 펴냄
4만5천원



한 시대를 흔들었던 법문

20년 시봉 상좌의 결집

성철 스님의 생애 한 눈에

책 표지의 흑백 사진 속엔 누더기 두루마기에 지팡이를 짚은 한 노장이 세상으로 걸어 나올 것처럼 서있다. 그리고 성성한 두 눈동자가 말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한 시대를 흔들었던 법문, 그 법문을 책으로 다시 듣는다. 원택 스님의 〈성철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1, 2〉, 〈성철 스님 행장〉이다.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출간된 이번 책은 큰스님을 20여 년간 시봉했던 상좌 원택 스님이 스승과 일상 속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들려준다. 법문과 법문 사이에 스님의 흑백사진들이 실려 있고, 각 권 말미에는 발표되지 않은 스님의 돈오돈수 요점 요약본도 실려 있다.

성철 스님이 병풍을 두르고 카메라 앞에 앉았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1955년경의 사진이다. 1권에서는 스님의 법어들 중 불교의 근본 교리인 중도이론을 비롯해 마음의 눈 뜨기, 본래불, 불공 등에 얽힌 이야기

들을 실었다. 이 번 책의 백미는 법문도 법문이지만 격면으로 실린 큰스님의 흑백사진들이다. 특히 2권에는 백련암 은거 30여년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실려 있는데, 한 장 한 장 책을 넘길 때마다 깊어가는 스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진흙왕 순수비에 기대어 세상을 굽어보는 모습, 나옹 선사 부도 앞에 청담 스님과 나란히 앉은 모습, 은진미륵 부처님 앞에 선 모습, 해인사 선방에 들려 용맹정진하고 있는 대중들을 둘러보는 모습 등 법문과 법문 사이에 배치된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책 속에 찍혀 있던 활자들이 육성으로 들려온다. “흔들리는 건 바로 너그릴 마음이야” “중간이나 중용은 중도 아이대야” “서로가 부처님이나 우리 서로 섬기자, 이말이다” “활금사승도 사승이지” “방장 스님은 법정 수좌를 좋아해” “목탁 두드려 장사하는 건 부처님 팔아먹는 거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 “공부도 안 한 것들이 법문은 무슨 법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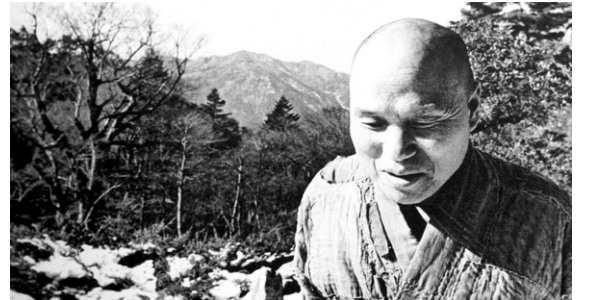
같은 법문들과 청담, 자운, 지관, 법정, 서옹, 보성 스님 등 동시대를 살았던 도반과의 일화들, 한국불교를 걱정하는 스님의 마음이 실려 있다.

“막상 일을 당하고 보니 어디서부터 무얼 해야 좋을지 막막했습니다.” 2권 후반부에서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이 임적했을 때 회상한다. “가야산에 부슬 부슬 비가 내리는 가운데 1993년 11월 10일, 40년간 누더기만 입었던 성철 스님은 노란 국화꽃으로 뒤덮인 법구차에 모셔져 10만에 이르는 애도인파의 행렬을 헤치고 다비장인 연화대로 향했습니다. 주변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를 꼭 막히게 하고서 걸어오는 인파까지 하면 30만에 이르다니, 가히 해인사 창건 이래 최대의 인파였다고 합니다. 평생 산에 머문 산승 성철 큰스님은 세상을 크게 울리면서 58년간 지킨 산문을 그렇게 떠나셨고, 남은 저의 마음에 ‘살아 계시는 동안 왜 좀 더 잘 모시지 못했을까’라는 뉘우침이 가득했습니다.” 이어 스님의 다비식 사진이 실려 있다. “연화대에서 거화하는 모습, 1993년 11월 10일 오후 1시 쯤”이란 캡션이 달린 스님의 마지막 사진으로 제자의 결집은 끝난다.

〈성철 스님 행장〉은 1912년 성철 스님 출생부터 1993년 입적까지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연경순으로 기록된 스님의 행적과 더불어 그 시기의 불교계 정황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불교보다 더 나은 진리가 있다면 또 찾아 나서야제!” 그렇게 진리를 찾아 구도의 길을 걸어갔던 수행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등 민족의 역사와 왜색불교 털어내기, 불교정화운동, 10·27 법난, 돈오돈수 논쟁, 실천불교의 등장 등 한국불교 백여 년의 역사를 성철 스님의 생애와 함께 만날 수 있다.

책을 엮은 원택 스님은 “만고의 진리를 향하여 초연히 나 홀로 걸어가려 한다는 원을 세우고, 그 진리를 불교의 중도사상에서 찾아내신 성철 큰스님. 중도의 깨달음을 보다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 여러 학문들을 자유자재로 넘나드심으로써 한국불교의 품을 한껏 넓혀주신 큰스님. 성철 큰스님의 탄신 백주년을 맞이하여 그 크신 가르침과 은혜를 우리 모두 곱고루 누려보았으면 합니다.”고 책을 엮은 소회를 서문에서 밝혔다. 〈성철 스님 행장〉은 사라진 ‘성철’이란 삶의 중창불사다. 사라진 절터에 다시 당우를 세우는 심정으로 더듬어간 한 순간 한 순간이 이제 낙성식을 가졌다. 정성 담긴 결집과 중창에 두 손 모은다.

〈성철 스님 행장〉은 1912년 성철 스님 출생부터 1993년 입적까지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연경순으로 기록된 스님의 행적과 더불어 그 시기의 불교계 정황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불교보다 더 나은 진리가 있다면 또 찾아 나서야제!” 그렇게 진리를 찾아 구도의 길을 걸어갔던 수행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등 민족의 역사와 왜색불교 털어내기, 불교정화운동, 10·27 법난, 돈오돈수 논쟁, 실천불교의 등장 등 한국불교 백여 년의 역사를 성철 스님의 생애와 함께 만날 수 있다.



누더기 장삼, 인자한 미소, 큰스님 얼굴 위에 바스라질 듯 내려앉은 가을 가야산의 햇살. 정겨운 산중 수행승의 오후 한나절 모습이 이 사진에 잘 담겼다. 성철 스님의 음성이 금세라도 들려올 것 같다.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의 나옹 선사 부도탑에서 청담, 성철 두 스님의 모습이다. 천보산 끝자락에 자리한 회암사터는 1997년부터 옛 절터에 대한 발굴 및 종합정비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고려 및 조선으로 이어진 국찰답게 일반 유물과 더불어 경복궁에 사용되는 봉황과 용이 그려진 기와, 백자접시, 잡상 등 일반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다.



제1회 전국선원 선화자 대회에 참석한 서암 스님(왼쪽에서 두 번째)은 당시 불암사 조실이었다. 성철 스님(사진 중앙)이 입적하신 후 그 뒤를 이어 중창으로 추대된 어른이시다.

마음공부 길 안내하는 법문집

있는 그대로 보아라

허정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3천원



“삼학산에 불이 왔습니다. 매년 오는 불이지만 올 때 마다 반갑고 새로운 것이 불입니다. 어느 계절인들 신선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불은 다른 계절에 비해 반가움이 큼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아라〉는 파주 심학산 약천사 주지 허정 스님이 수행과정에서 틈틈이 기록한 법문집이자 불자들의 마음공부 길을 안내하고 번뇌, 망상을 쉬게 하는 예세이집이다. 책에 실은 법문은 저자가 여러 해 동안 법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

둔 것이 한 권의 책이 됐다. 부처님 최후의 진실한 가르침인 법화경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담고있는 보양삼매론의 법문들을 수습생의 참고서처럼 생활법문으로 풀어놓았다. ‘있는 그대로 보아라’ 가장 쉬운 주문이고 가장 어려운 실천이 아닐까. 그래서일까. 스님은 책 표지에 ‘조고각하(照顧脚下)’라고 당부하고 있다. 땀뿜 위의 신발 한 켤레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르침의 첫 걸음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지금 여기가 극락이고 지옥입니다. 오늘도 부처가 부처를 만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평등이고 보이는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느끼는 그대로가 불성이어서 덧칠하지 않은 그 순일무잡(純一無雜)이 정묘요 극락입니다.”

서문엔 글과 함께 스님이 불멸의 마당을 사뭇하고 걷고 있다. 정말 불을 기다렸던 것 같다. 어느 법문인들 볼처럼 반갑

고 새롭지 않은 것이 있을까. 역시 미망의 중생에게는 법문처럼 반갑고 새로운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다렸던 볼처럼 반가운 법문집이 불바람처럼 다가왔다. 봄바람 부는 마당으로 나가볼 일이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지혜와 자비의 종교인 불교의 ‘도에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수행과 보살행을 견해 나아가갈 수 있도록 생활수행의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다. **박재완 기자**

허정 스님은
1965년 동화사로 출가. 의현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76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2년 뒤 범주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제10대 중앙총회의원, 대구 용연사 주지, 서울 북악현동 금륜사 주지(창건), 조계종포교원 연수부장, 경찰청 경승 등을 지냈다. 1995년부터 파주 심학산에 약천사를 창건, 도량불사를 하며 포교에 전력하고 있다.

조선 명의 사암도인 삶 소설로

침객 1,2,3

박광수 지음 | 정신세계사 펴냄 | 각권 1만3천원



‘침구요결’이라는 책 한 권만을 남기고 흔적 없이 사라져간 조선의 명의, 사암도인의 삶을 재구성한 소설이다. 사암도인은 사암오행침이라는 독특한 침술을 창안해낸 전대미문의 의학자였음에도 그 행적은 물론이고 본명과 생몰연대조차 기록이 없다. 알려진 것은 〈침구요결〉에 적힌 ‘사암도인’이라는 이름뿐이다. 아마도 그는 가난한 백성들 틈에서 ‘의술은 곧 인술’이라는 참된 의원의 도리를 실천하다가 홀연히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침구요결〉의 행간에서 생명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불교와 도교를 넘나드는 정신적 사유를 엿어낸 저자는 소설 속의 사암도인을 ‘대동세상’을 꿈꾸다 역모로 몰려 참수당한 정여립의 외손자로 설정했다. “굳이 저를 기억해주시겠다면, 침이나 놓고 다니는 떠돌이일 뿐이니 그저 침객(針客)이라 불러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침객 잘 가시오.” 그는 언제 어디로 간 걸까. 역사적 사료가 전무한 한 사람의 삶이 소설로 복원된 이유는 그의 삶에 무언가 들어다 볼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반부름 따지지 않고 인술을 실천한 한 침객의 이야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인간성에 따뜻한 바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www.buddhabook.co.kr
www.buddhabook.co.kr
www.buddhabook.co.kr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8~4/24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쌤애펜터
2	탄허록	탄허	휴
3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4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5	친절한 간화선	월암	담앤북스
6	원하고 행하니 이루어지더라	보경	불교시대사
7	격정말고 기도하라	법안	은행나무
8	성철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1	원택	클씨미디어
9	당신은 행복한가	달라이 라마	문학의숲
10	경허	일지	민족사

※ 불서총편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www.buddhabook.co.kr
www.buddhabook.co.kr

증보판

스리랑카 Beacon Hall 행사장으로 들어갈 때, 저자와 함께 목에 꽃을 걸고 있는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佛敎는 깨달음의 科學

근대 과학의 巨匠(거장) 아인슈타인! 그는 불교란 지구 위의 인류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범주를 훨씬 뛰어 넘어 범우주적 신앙으로 보았다. 그는 또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며 과학없는 종교는 장님이라 말한 바 있다...

죽음의 족쇄를 풀어라. 무명(無明) 속에 있으면 오온(정신, 육체)은 내가 되고, 무명(無明)을 벗어나면 오온(정신, 육체)은 내가 아니네. 무명(無明)속에 있으면 생사(生死)는 나의 운명(運命), 무명(無明)을 벗어나면 생사(生死)는 꿈속의 꿈이로네.

무진 황경환 선생이 엄선한 주옥같은 108경구를 읽다보면 많은 경전에 대한 섭렵과 경전에 대한 통찰에 세상 웃음을 가다듬게 한다. 특히 人間(인간)의 참재상은 물질이 아니고 선한 마음이고 자신의 無知(무지)로 인해 선하지 못한 그 마음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라는 대목에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한다.

- 한국 빼일리 성전협회 대표 퇴원 전재성

근본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 과학적 지식이야 사회적 불교사상을 통해 현대적으로 해석한 책,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게 하고, 또 익숙하게 불교적 신행에 젖어 있던 분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으리라.

- 동국대학교 교수 정병조

그가 펴낸 수상집(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라는 책을 읽어 보면 불교의 참뜻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나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태평양 시대 위원회 이사장 김동길 박사

저자 황경환
사) PTP 한국본부 제 13대 총재역임
사) 한국불교연구원 이사과 연구위원 역임
초기불전연구원 산인 연구원
비른불교실천포럼 회장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평생교육원 교수
주) 진왕유조선 대표이사
주) 경주 ICS 대표이사

반야심경, 김사철, 황경환 공저 | 저서 신라불교의 윤리적 성격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

가격: 15,000원 / 구입문의: 054) 744-8211-2
해나은행 (황경환) 502-910341-61007
주)출판권처(이리) (도서관) 070-8866-2220

Buddhism as the Science of Enlightenment
佛敎는 깨달음의 科學